

# 학령기 아동의 행복과 그릿의 관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한이<sup>1</sup> · 문우종<sup>2</sup>

<sup>1</sup>한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 <sup>2</sup>한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Grit in School-Aged Childre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nyi Lee<sup>1</sup> · Woojong Moon<sup>2</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up>2</sup>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8권 제2호 2024년 6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8, No. 2, June. 2024



# 학령기 아동의 행복과 그릿의 관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한이<sup>1</sup> · 문우종<sup>2</sup>

<sup>1</sup>한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 <sup>2</sup>한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Grit in School-Aged Childre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nyi Lee<sup>1</sup> · Woojong Moon<sup>2</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up>2</sup>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explores the influence of children's happiness on their grit for successful growth and development, while investigating the moderating role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It aims to provide insights into children's mental health and internal development. **Methods** : The analysis employs secondary data from the 11th (2018)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ildren's gri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variab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happiness were extract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employed to assess the moderating effect. **Results** :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arenting attitudes of both parents and the children's happiness and grit. Adding interaction terms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happines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grit increased the explanatory power from 28.5% to 29.1%. This indicates tha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have a moderating effect. **Conclusion** : To enhance children's grit, interventions must address children's happiness and promote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Prioritizing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is crucial, emphasizing the need for positive parenting approaches. Tailored interventions focusing on both child well-being and parenting attitudes are essential.

**Key words** : Child, Happiness, Parenting, Mental health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과 발달이 동시에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기간 동안의 경험 및 성장과 발달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준다[1]. 특히 아동기에 형성되는 적극성과 노력에 대한 태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고 이후 발달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이전 연구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아동들이 가지는 특성이 그릿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되었다[3,4]. 그릿은 긴 시간동안 특정 목표에 대한 열정, 흥미, 일관성, 목표 달성을 위한 인내, 개인의 어려움 극복 노력 등을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아동의 개인적 성장 및 발전의 관점에서 발휘될 수 있는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5-7]. 그릿 수준이 높은 아동은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그릿은 단순히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인으로, 삶에서의 성취, 주관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도, 그리고 건강행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으로선 신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행복 등이 보고되고 있다[9,10]. 이 중 특히 아동의 행복은 삶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아동으로 하여금 정신 건강과 안녕감을 유지 및 증진하고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상태를 일컫는다[11]. 이러한 행복감은 아동으로 하여금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며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심리적 자원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9]. 또한 자아 정체성이 형성 중에 있으며 학업 및 사회적 목적에 대한 의식의 성장도 초기 단계에 있는 아동기에는 양육 개입의 목

적을 아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릿 증진에 두기보다는 아동의 행복 증진을 우선시하면서 그릿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1,4].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대다수 아동에게 가장 밀접한 사회적 관계인 부모는 아동의 역할모델이자 아동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12].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학습하고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형성 및 행동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 동기과 능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3].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인 때 아동의 그릿과 행복은 증진될 수 있다[7]. 따라서 아동의 그릿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정환경, 특히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모의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아동의 행복과 그릿 발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탐구하는 것은 부모 교육과 양육 지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역할분담이 부부에게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에서의 역할 분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더 많은 아버지가 아동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14]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각각 다른 변수로 살펴보면서도 포괄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성공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의 정신 건강, 특히 행복이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복과 그릿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여 아동의 정신건강과 내적 성장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

고자 실시되었고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그릿을 파악한다.
- 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행복, 그릿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아동의 행복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아동의 행복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이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 아동의 행복과 그릿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차 자료분석을 통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에서 조사한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2018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http://panel.kicce.re.kr/eng/index.jsp>). 본 연구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인 만 10세 자녀와 부모의 데이터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가족 중 어머니와 아버지, 아동이 모두 응답한 가정 988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은 학령 중기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가면서 교육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장과 발달을 보이는 시기로 아동의 행복과 그릿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 본 연구의 통계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원시자료 공개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받았으며, 자료출처를 공개하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원시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3. 분석변수

본 연구에 활용된 연구변수는 다음과 같다.

#### 1)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가족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아동의 성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형태는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핵가족 형태와 조부모 또는 친척과 함께 사는 확대 가족 형태로 나누었다. 가구소득은 응답자의 소득을 4분위로 나누어 분류하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 초대졸, 대졸이상으로 분류하였다.

#### 2) 아동의 그릿

그릿(Grit)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과 Hwang[15]이 Duckworth[16]의 그릿 측정검사를 번안하여 타당화 연구를 수행한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를 활용하였다. 그릿은 흥미유지(4문항)와 노력지속(4문항)의 2개 하위요인,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유지 문항의 예로는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노력지속 문항의 예로는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등이 있다. 흥미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문항으로 구성된 흥미유지 문항은 역산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65으로 나타났다.

#### 3)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17]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 및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총 62 문항으로, 크게 권위있는(authoritative, 27문항),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20문항), 허용적인(permissive, 15문항) 양육태도로 구분되는데, 이 중 권위있는 양육태도는 자녀를 훈육하고 통제하지만 처벌은 사용하지 않는 온정적 양육 행동으로 일관적이고 분명한 양육태도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육태도이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위있는 양육태도를 긍정적 양육태도로 명명한 선행연구[19]를 기반으로 권위있는 양육태도 변수를 긍정적 양육태도 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으로 나타났다.

#### 4) 아동의 행복

아동의 주관적 행복 측정을 위해서 Millennium Cohort Study[20]의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 아동의 행복 척도로 사용하였다. 아동의 행복 척도는 총 6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화 방식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에서 ‘매우 행복해요(4점)’로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각 영역(학교 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에 대한 아동의 행복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3으로 나타났다.

####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자료인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ICCEIRB-2018-제02호)을 받아 수행되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에 따라 개인을 추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자료를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s://kicce.re.kr/pskc>)에서 소속과 사용목적만을 제출하고 다운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분석의 모든 과정에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가중치는 자료수집 설계 시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변수로 모집단 추정을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의 그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행복은 빈도와 평균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가족형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그림의 차이는 t 검정을 실시하고 월평균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그림의 차이는 ANOVA검정 후 Scheffe's test로 사후검정하였다. 부모의 연령과 아동의 그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그림, 행복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하였다. 아동의 행복이 그림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아동의 그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89.7%(887가구)가 핵가족이었으며 가구소득은 1분위가 34.1%(327가구)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43.51 \pm 3.70$ 세이며 대졸 이상이 56.3%(532명)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41.01 \pm 3.45$ 세였으며 대졸 이상이 46.8%(439명)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남아가 52.6%(514명)으로 여아 47.4%(474명)보다 더 많았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그림은 핵가족인 경우가 확대가족에 비해 높았으며( $t=7.03, p<.001$ ),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아동의 그림이 유의하게 높았다( $F=437.16, p<.001$ ). 아버지의 나이와 아동의 그림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06, p<.001$ ),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그림에 차이가 나타났다( $F=1104.36, p<.001$ ). 어머니의 나이와 아동의 그림도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09, p<.001$ ),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그림에 차이가 있었다( $F=2505.66, p<.001$ ). 사후검정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나 초대졸의 경우에 비해 아동의 그림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남아에 비해 여아인 경우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Children's Grit (N= 988)

					Grit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sup>†</sup>	% or Range	M±SD	t or F or r (Scheffe' s)	p
Family	Family structure	Nuclear	887	89,7	3,43±0,54	7,03	< ,001
		Extended	101	10,3	3,41±0,48		
	Household income	I (lowest) <sup>a</sup>	327	34,1	3,43±0,47	437,16	< ,001
		II <sup>b</sup>	263	25,9	3,38±0,57	(d) a,b,c,	
		III <sup>c</sup>	153	15,0	3,44±0,54	c) a,b,	
		IV(highest) <sup>d</sup>	245	24,9	3,48±0,55	a) b)	
Father	Age(years)		43,51±3,70	29-60		,06	< ,00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sup>a</sup>	255	26,0	3,39±0,53	1104,36	< ,001
		College <sup>b</sup>	201	17,7	3,37±0,54	(c) a,b)	
		University or higher <sup>c</sup>	532	56,3	3,47±0,53		
Mother	Age(years)		41,01±3,45	29-56		,09	< ,00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sup>a</sup>	266	25,7	3,36±0,52	2505,66	< ,001
		College <sup>b</sup>	283	27,5	3,37±0,58	(c) a,b)	
		University or higher <sup>c</sup>	439	46,8	3,50±0,50		
Children	Gender	Male	514	52,6	3,42±0,54	9,95	< ,001
		Female	474	47,4	3,44±0,52		

<sup>†</sup>Number of participants is unweighted and percent (%) is weighted; M±SD=Mean and Standard Deviation.

그릿이 더 높았다( $t=9.95, p<.001$ ).

## 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행복, 그릿의 관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행복, 그릿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3.68\pm0.44$ 점,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3.79\pm0.38$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행복은  $3.31\pm0.46$ 점, 그릿은  $3.43\pm0.53$ 점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r=.31, p<.001$ ), 아동의 행복( $r=.11, p<.001$ ), 아동의 그릿( $r=.15, p<.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도 아동의 행복( $r=.13, p<.001$ ), 아동의 그릿( $r=.21, p<.001$ )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동의 행복과 그릿( $r=.49, p<.001$ )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이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분석은 4단계에 걸쳐 실시하였고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가족구조, 가구소득, 아버지의 나이와 교육수준, 어머니의 나이와 교육수준, 아동의 성별을 통제변수로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아동의 행복을, 3단계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4단계에서는 아동의 행복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항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만 투입한 1단계 분석의 설명력은 2.1%였으며( $F=807.69, p<.001$ ), 아동의 행복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26.5%로 증가하였고( $F=11913.36, p<.001$ ),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추가로 투입한 3단계의 설명력은 28.5%로 증가

Table 2. Relationships Among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Children's Happiness, and Grit (N= 988)

Variable		M±SD	Range	Father	Mother	Childr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 r( <i>p</i> )	Positive parenting attitude r( <i>p</i> )	Happiness r( <i>p</i> )	Grit r( <i>p</i> )
Father	Positive parenting attitude	3.68±0.44	2.31-4.93	1	.31 ( <i>&lt;.001</i> )	.11 ( <i>&lt;.001</i> )	.15 ( <i>&lt;.001</i> )
Mother	Positive parenting attitude	3.79±0.38	2.62-4.95		1	.13 ( <i>&lt;.001</i> )	.21 ( <i>&lt;.001</i> )
Children	Happiness	3.31±0.46	1.00-4.00			1	.49 ( <i>&lt;.001</i> )
	Grit	3.43±0.53	1.50-5.00				1

Table 3.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Gri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Variables <sup>†</sup>		Step 1		Step 2		Step 3		Step 4	
		<i>β</i>	t( <i>p</i> )	<i>β</i>	t( <i>p</i> )	<i>β</i>	t( <i>p</i> )	<i>β</i>	t( <i>p</i> )
Control variable	Family structure (Extended)	−0.02	9.53( <i>&lt;.001</i> )	−0.03	−22.79( <i>&lt;.001</i> )	−0.04	−23.35( <i>&lt;.001</i> )	−0.03	−22.66( <i>&lt;.001</i> )
	Household income	0.01	2.54(.011)	0.01	4.51( <i>&lt;.001</i> )	−0.01	−5.65( <i>&lt;.001</i> )	−0.01	−4.44( <i>&lt;.001</i> )
	Father's age	0.01	0.37(.712)	0.03	15.44( <i>&lt;.001</i> )	0.05	23.04( <i>&lt;.001</i> )	0.04	20.31( <i>&lt;.001</i> )
	Father's education (College)	−0.02	−9.46( <i>&lt;.001</i> )	−0.03	−16.35( <i>&lt;.001</i> )	−0.04	−23.09( <i>&lt;.001</i> )	−0.05	−26.36( <i>&lt;.001</i> )
	Father's education (University or higher)	−0.01	−3.50( <i>&lt;.001</i> )	−0.04	−17.55( <i>&lt;.001</i> )	−0.05	−23.69( <i>&lt;.001</i> )	−0.05	−22.57( <i>&lt;.001</i> )
	Mother's age	0.07	29.75( <i>&lt;.001</i> )	0.06	27.30( <i>&lt;.001</i> )	0.03	16.05( <i>&lt;.001</i> )	0.04	18.86( <i>&lt;.001</i> )
	Mother's education (College)	0.02	8.98( <i>&lt;.001</i> )	0.06	29.95( <i>&lt;.001</i> )	0.04	22.59( <i>&lt;.001</i> )	0.04	21.43( <i>&lt;.001</i> )
	Mother's education (University or higher)	0.12	46.80( <i>&lt;.001</i> )	0.14	62.63( <i>&lt;.001</i> )	0.14	60.43( <i>&lt;.001</i> )	0.13	59.22( <i>&lt;.001</i> )
Independent variable	Children's gender (Female)	0.02	−10.95( <i>&lt;.001</i> )	−0.02	−16.00( <i>&lt;.001</i> )	−0.02	−14.50( <i>&lt;.001</i> )	−0.02	−12.64( <i>&lt;.001</i> )
	Children's happiness			0.50	330.84( <i>&lt;.001</i> )	0.48	316.59( <i>&lt;.001</i> )	−0.23	−14.79( <i>&lt;.001</i> )
	Fa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0.05	29.38( <i>&lt;.001</i> )	−0.45	−40.44( <i>&lt;.001</i> )
Interaction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0.13	79.39( <i>&lt;.001</i> )	0.03	2.49(.013)
	Fa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Children's happiness							0.80	44.95( <i>&lt;.001</i> )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Children's happiness							0.18	9.10( <i>&lt;.001</i> )
	Adjusted R <sup>2</sup>		.021		.265		.285		.291
R <sup>2</sup> change					.244		.020		.006
F( <i>p</i> )			807.69( <i>&lt;.001</i> )		11913.36( <i>&lt;.001</i> )		10966.04( <i>&lt;.001</i> )		9678.83( <i>&lt;.001</i> )

<sup>†</sup> References: education(High school or less), family structure(Nuclear), children's gender(Male)

하였다( $F=10966.04$ ,  $p<.001$ ).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행복의 상호작용항,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행복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4단계의 설명력은 29.1%로 높아졌으며( $F=9678.83$ ,  $p<.001$ ), 아동의 행복과 그릿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 태도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2018년도 11차년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만 10세 아동의 행복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아동의 그릿은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 형태의 가족구조와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아동의 그릿이 높은 관계를 보이는 것은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이나 자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확대가족에 비해 핵가족의 경우 비교적 부모가 주된 양육 책임자로서 아동에게 일관된 양육 방식을 제공하고, 부모의 소득이 자녀에 대한 투자로 연결되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1,22].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목표의식이나 도전정신, 성취에 부여하는 가치가 높아지며, 이러한 부모의 가치가 내재된 생활 태도가 아동의 역할모델이 되면서 아동의 그릿 형성에 차이를 줄 수 있다[23]. 따라서 아동의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동 개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의 특성과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아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한 불이익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사회경제적 지원 강화,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멘토링 등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아동의 행복과 그릿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이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인내와 열정을 특징으로 하는 그릿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양육환경 및 양육참여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더 많은 비중으로 양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4]. 본 연구 결과는 부모 각자의 전통적인 역할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복과 그릿을 포함한 아동의 발달과 다차원적 건강 증진은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이라는 중요한 과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동 양육에 충분한 시간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자녀를 회복 탄력성이 높고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는데 있어 부모 모두의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25]. 아동의 주관적 행복의 정

도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소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체계화된 사회적 개입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많을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행복은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제변수만 투입한 1단계에 비해 아동의 행복이 포함된 2단계에서 설명력이 24.4% 증가하였다.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그릿의 핵심측면인 목표에 깊게 몰입하고 자신의 활동에 의미를 두어 성취를 지향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 아동의 안녕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26,27]. 더불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투입한 3단계에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부모 교육 워크숍, 온라인 양육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내 멘토링 시스템 구축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28].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부모가 양육을 단지 의무가 아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촉진을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회귀분석의 4단계에서 아동의 행복과 그릿의 관계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행복과 그릿의 관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복과 그릿의 관계를 강화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즉, 아동의 행복이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단독 효과보다 두가지의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릿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29]. 특히 아동기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형성되는 매우 민감한 시기로 가정과 부모로부터의 안정적이고 지지

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아동의 그릇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전제로 하는 양육 상황에서 아동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 형성과 보살핌의 중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의 그릇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행복 수준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파악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아동기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발달이 있는 연령대로 이에 따른 변화의 다양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패널데이터의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행복과 그릇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하여 아동의 행복이 그릇에 미치는 인과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더 다양한 매개 및 조절 변수의 효과성도 검증한다면 보다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행복과 그릇,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파악하고, 아동의 행복이 자신의 그릇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복이 그릇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연구 결과, 아동의 행복은 그릇을 증가시키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행복이 그릇의 발달에 미치는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의 그릇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위한 중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부모와 교육자들은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 아동기 조차도 경쟁과 목표 달성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집중이 이루어지

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행복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는 양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안녕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중재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이후까지의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 연계된 가족의 역동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1. Bethell C, Jones J, Gombojav N, Linkenbach J, Sege R. Positiv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 mental and relational health in a statewide sample: associations acros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levels. *JAMA Pediatrics*. 2019;173(11):e193007. <https://doi.org/10.1001/jamapediatrics.2019.3007>
2. Chang X, Jiang X, Mkandawire T, Shen M. Associations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health outcomes in adults aged 18–59 years. *PLoS ONE*. 2019;14(2):e0211850.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1850>
3. McConnel J, de Leon C. The brightest part of the forest: a grit analysis of an Ontario children's book award. *Language and Literacy*. 2020;22(2):64-79. <http://doi.org/10.20360/langandlit29473>
4. Lim HJ, Yu BS. The Effects of grit on child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022;32(2):187-212. <https://doi.org/10.32465/ksocio.2022.32.2.007>
5. Duckworth AL, Peterson C, Matthews MD, Kelly DR.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7;92(6):1087-1101.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6. Rutberg S, Nyberg L, Castelli D, Lindqvist AK. Grit as perseverance in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 Public Health. 2020;17(3):807.  
<https://doi.org/10.3390/ijerph17030807>
7. Sturman ED, Zappala-Piemme K. Development of the grit scale for children and adults and its relation to student efficacy, test anxiety, and academic performanc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17;59:1-10.  
<https://doi.org/10.1016/j.lindif.2017.08.004>
8. Yang HM. Associations of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style, and grit with health behaviors in children using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21;27(4):309-316.  
<https://doi.org/10.4094/chnr.2021.27.4.309>
9. Duckworth A, Gross JJ.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14; 23(5):319-325.  
<https://doi.org/10.1177/0963721414541462>
10. Choi YM.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gri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2020;18(2):1-17.  
<https://doi.org/10.35639/daehan.2020.18.2.1>
11. Khormehr M, Honarmandpour A, Adineh M, Jahangirimehr A, Shahvali EA. A surve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the supervision of welfare organization of Ahwaz in 2017. *Journal of Pharmaceutical Research International*. 2019;28(2): 1-8. <https://doi.org/10.9734/jpri/2019/v28i230201>
12. Ulferts H. Why parenting matters for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n evidence-based framework for understanding parenting and its impact on child development. Paris: OECD Publishing; 2020.  
<https://doi.org/10.1787/129a1a59-en>
13. Huang CY, Hsieh YP, Shen ACT, Wei HS, Feng JY, Hwa HL, et 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reported parenting, child-perceived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in Taiwa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9;16(6):1049.  
<https://doi.org/10.3390/ijerph16061049>
14. Cho YK.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and fathering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Converging Humanities*. 2014;2(1):83-112,  
<http://doi.org/10.14729/converging.k.2014.2.1.83>
15. Kim HM, Hwang MH. Validation of the Korean grit scale for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 2015; 35(3):63-74. <http://doi.org/10.25020/je.2015.35.3.63>
16. Duckworth AL. Intelligence is not enough: non-IQ predictors of achievement [disserta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6.
17. Robinson C, Mandleco B, Olsen SF, Hart CH.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1995;77(3):819-830.  
<https://doi.org/10.2466/pr0.1995.77.3.819>
18. Larzelere RE, Morris ASE, Harrist AW. Authoritative parenting: Synthesizing nurturance and discipline for optimal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p. 11-34.
19. Rha J, Son S, Kim S.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happiness, and creativi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21;30(2):227-239.  
<http://doi.org/10.5934/kjhe.2021.30.2.227>
20. Centre For longitudinal studies. Millennium Cohort Study [Internet].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London: 2008 [cited 2024 February 12]. Available from: <http://www.cls.ioe.ac.uk/page.aspx?&sitesectionid=957&sitesectiontitle=Surveys+and+documentation>
21. Wikle JS, Hoagland A. Adolescent interactions with family and emotions during interactions: variation by family structur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 2020;34(5):544-554.  
<https://doi.org/10.1037/fam0000625>
22. Joy K, Prathap V, Rajan AP, Vandana VS. Influence of parent's grit on student's grit and the effect of other social determinants upon the relation. *India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020;11(2):152-155.
23. Jung J, Hwang S. The influence of family income on adolescents' grit: the mediation rol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parenting styl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0;27(11):283-312.  
<http://doi.org/10.21509/KJYS.2020.11.27.11.283>
24. An S, Lee M. Determinant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responsibility among fathers with young childre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0;14(1):3-25.  
<http://doi.org/10.5718/keep.2020.14.1.3>
25. Jin DJ, Lee S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ego-resilience and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019;50(3):153-177.  
<http://doi.org/10.15854/jes.2019.9.50.3.153>
26. Alam A. Positive psychology goes to school: conceptualizing students' happiness in 21st century schools while 'minding the mind!' are we there yet? evidence-backed, school-based 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s. *ECS Transactions*. 2022;107(1):11199.  
<http://doi.org/10.1149/10701.11199ecst>
27. Park SY, Shin MJ, Kwak JY.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appiness of the upper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Art Psychotherapy Study*. 2021;1(1):69-84.  
<https://doi.org/10.54071/APS.1.1.4>
28. Spencer CM, Topham GL, King EL. Do online parenting programs create change?: a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20;34(3):364-374.  
<https://doi.org/10.1037/fam0000605>
29. Kim, YS. Analysis of latent group, and influence factors of individuals and environments according to longitudinal changes in early adolescence' grit: analyz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22;28(4):47-69. <https://doi.org/10.29318/KER.28.4.3>